	인도 (뉴 델 리) 사 무 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 0 2 4 . 3 .

CEPA Insight

- 6년만에 열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특별 전략적 동반자 협력 강화"
- 인도 외무장관, "韓 인구문제? 印 인재들이 기여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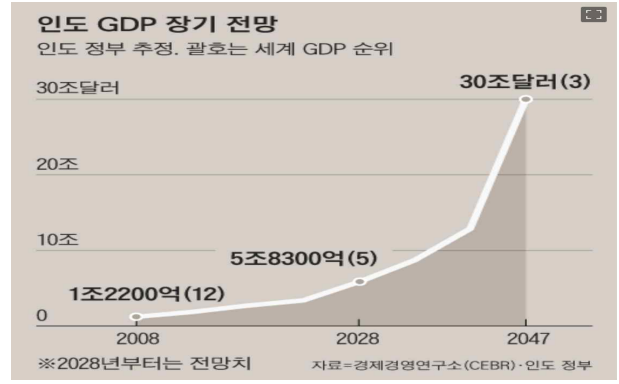
■ 6년만에 열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특별 전략적 동반자 협력 강화"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를 주재하고 수교 50주년 이후 첫 번째 해를 맞는 올해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
- 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내 투자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함.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조속히 신설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측의 협조를 당부.
- 양 장관은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협의.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환경 조성 및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과 관련하여 자이산카르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40억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양 장관은 가치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한국-인도-미국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출처:헤럴드경제 /2024.03.06)



<제 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인도 GDP 장기 전망>

■ 인도 외무장관, “韓 인구문제? 印 인재들이 기여할 수 있어”

• 자이산카르 외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인구문제에 인도의 인재들이 기여할 수 있기에 협력 잠재성이 큰 부분”

- 인도, 세계 1위 인구 대국이며 인도의 지난해 기준 인구 중위연령은 28세로 (한국 중위연령 46세)로 젊은 국가. 자이산카르 장관은 “젊은 인구가 많다는 강점을 넘어 이들의 기술과 재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10년간 모디 정부에선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소개.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여러 나라가 인력 교류 협약 등의 방식으로 인도의 젊은 인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한국의 인력 부족 등 인구문제 해법 중 하나도 인도가 될 수 있다고도 제안. 자이산카르 장관은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문제에 인도의 인재들이 기여할 수 있기에 이민과 인력 교류 또한 (한·인도 사이) 협력 잠재성이 큰 부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하는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 “(위기에도) 회복력 있는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s)을 구축하거나 신뢰도 높은 디지털 제품의 교역 등 양국이 공통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분야에서 더욱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함.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 이차전지, 첨단 제조, 반도체, 전자제품, 그린 수소,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는 인도와 한국 기업이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문”

자이산카르 장관은 “한국 기업은 (인도의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에 더욱 주목하고, 협력사를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면서 “방산을 비롯한 특정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성공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밝힘. (출처: 조선일보/2024.03.07.)

■ 시사점

• 현재 경제정책이 안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인도에선 올 4~5월 치루어질 총선에서 모든 동향을 살펴보아도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임. 모디 총리는 '영약(靈藥)의 시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암릿 카알(Amrit Kaal)'을 강조. 이 단어는 영국에서 독립한 지 100주년인 2047년 인도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20여 년의 황금기를 뜻함. 이 암릿 카알의 시기, 인도는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 경제정책 'Make in India' 을 더욱 확고하게 할 것으로 보임. 완제품의 수출보다는 인도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안, 인도 현지 기업과의 기술제휴, 인도 현지 기업이 생산하기 어려운 고기술 제품의 수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끝.